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총괄의견>

□ 일반행정분과 의견

- 2021년도 지방재정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수요가 급증하여 세출은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어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건전한 재정 운용과 행복한 도민 실현 및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이 요구됨
- 제시된 예산사업들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가능하게 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사업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할 필요가 있음

□ 복지여성분과 의견

-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고자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이 실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람

□ 문화체육분과 의견

- 예산편성은 시급성, 혜택의 다양성, 소외 및 약자 배려, 효율성, 균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예술의 결정체라고 생각함.
- 향후 미래는 질병과의 전쟁이기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예산편성에 좀 더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1회성, 소모성 사업, 특정단체지원 등 도민의 기대 효과가 의심스러운 사업은 지양하고 예산편성 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하여 많은 지원이 필요함. 더 많은 관심으로 예술인들이 예술계를 떠나지 않도록 지원 요청함

□ 경제환경분과 의견

- 내년도 예산편성은 급변하는 미래 대응 등 우리도 경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신산업 육성, 도내 투자유치와 도민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분야(코로나19 대응, 언택트 시대, 환경오염 등), 산불,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농정분과 의견

- 코로나 19의 어려움속에서도 농업정책, 유기농사업, 동물방역 등 많은 재원이 골고루 배분되어 충북도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
-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수입농산물에 대응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에 정부 농업의 혁신에 맞추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활용하는 관광, 휴양, 체험 등의 기능을 살려나가면서 충북의 자랑인 유기농을 융복합하는 형태의 새로운 소득 구조를 창출하는 사업의 발굴과 지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함

□ 안전건설분과 의견

- 지방재정의 어려움에도 재난안전 및 하천분야, 균형발전, 도로시설 유지관리 분야와 소방분야에 신규사업, 유지관리, 시설홍보, 안전 등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도민의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기대가 됨
- 특히 도로, 하천분야의 예산은 신규 편성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유지보수 분야에도 더 관심을 갖고 증액이 필요함

- 또한, 모든 사업을 사전에 분석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재정운영 기본방향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전관리 강화 등 도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이에 별첨과 같이 각 분과별 의견을 취합, 2021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0. 1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반행정분과위원장 심옥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일반행정분과>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 2021년도 지방재정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수요가 급증하여 세출은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어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건전한 재정 운용과 행복한 도민 실현 및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제시된 예산사업들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가능하게 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사업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음

2. 분야별 세부의견

1) 기획관리 분야

- 홍보배너 설치를 통한 도정홍보는 매우 효율적으로 생각되며 기초자치단체에도 설치가 필요함
- 저출산을 극복할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출산장려 홍보정책을 동반해야한다고 사료됨

2) 공공행정 분야

-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모사업은 지역공동체의 현안문제 해결 등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 향상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사업중대를 희망함
- 남부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시군연계 사업과의 철저한 비교분석이 필요함

3) 홍보 분야

- 도정소식지 발간으로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도정소식을 접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향후 소식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민 모두에게 도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길 바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복지여성분과>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
-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고자 운영하는 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이 실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분야별 세부의견

1) 여성·가족분야

- 양성평등 정책 워크숍은 도내 모든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2년전 (*격년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비 일부 삭감된 사업인데, 내년에도 2년전과 동일하게 삭감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점이 아쉬움

2) 복지분야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누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 보수보강이 시급하며, 예산 절약 차원에서 수차례의 부분 공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공사가 필요함
- 2018년부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가 지원되었는데,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도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3) 노인·장애인분야

- 어린이나 청소년은 학대피해와 관련 많은 부분이 공론화되어 있으나, 노인 학대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함. 노인학대 문제가 시급하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대한노인회 회관 건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신축이 아닌 증축을 하는 것이 땀질식 예산으로 생각되며, 안전이나 개보수 문제 등으로 차후 더 큰 예산이 소요될 것이 우려됨
-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사업은 사업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장애인 관련 장비·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국비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기를 건의함
- 경로당지킴이사업의 경우 읍면동 경로당 책임관리자 수당 월 10만원 지급으로는 책임감 부여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사업 효과성이 있는지 궁금함

4) 식품·의약분야

-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은 9개 시군만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직 향토음식거리가 지정되지 않은 증평과 음성을 포함하여 도내 모든 시군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문화체육분과>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 예산편성은 시급성, 혜택의 다양성, 소외 및 약자 배려, 효율성, 균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예술의 결정체라고 생각함
- 향후 미래는 질병과의 전쟁이기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예산 편성에 좀 더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충청북도 지역을 전국적, 세계적으로 명소화, 발전화, 개발화할 수 있는 정책 적극개발 추진 요망
- 1회성, 소모성 사업, 특정 단체지원 등 도민의 기대효과가 의심스러운 사업 지양하고, 예산편성 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하여 많은 지원이 필요함. 더 많은 관심으로 예술인들이 예술계를 떠나지 않도록 지원 요청함
- 예산 편성은 전체적으로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음
- 각 항목별 예산서를 좀 더 면밀히 체크하고 이해가 잘 되도록 하면 좋겠음

2. 분야별 세부의견

1) 문화예술분야

- 신규사업은 분명 필요에 의해 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봄. 차질 없이 진행 되어야겠지만 여러 계층을 고려한 편견 없는 편성(예산)과 집행을 기대함
- 충북학 연구사업, 충북민족예술제, 도지정문화재 지원 등 충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 및 예산지원은 긍정적으로 생각됨
- 빛과학 예술 융복합사업은 1회성, 소모성인데 거대예산투자로 실효성이 의문임

- 충북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
- 문화예술을 진작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는 건 바람직하나, 행사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내용을 보완하도록 의견 개진함. 도 규모로 집행하기에 너무 액수가 소액인 경우 항목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충북독서대전 개최 지원은 행사의 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 조율이 필요함

2) 체육분야

- 생활체육 관련 예산의 좀 더 광범위한 확대를 기대함
- 생활체육대회지원, 장애인체육지원 등 도민생활과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은 적극 추진
- 충북중단대장정사업은 더욱 발전하기를 요망하나 참가자(140명)보다 참여 지원단(1,860명)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은 아닌지 예산의 실용성과 효과성에 의문임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체육활동이 가능한 항목이 보완되었으면 함
- 국제무예영화제 관련 예산은 집행부서에 대한 조율(부서변경)이 필요함

3) 관광항공분야

- 신규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특히 온오프라인 매체 관련 예산도 좀 더 확대하여 충북의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길 기대함
- 청주공항활성화, 국제선재정지원, 도지정축제지원 등 충북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 필요
- 괴산수옥정-철도연계사업, 단양 D-Camp 등 일부 특정지역 지원사업은 실효성, 기대효과 등 의문임
- 충북 관광 SNS를 보면 작성자가 축제 등 직접 체험한 내용을 올리고 있음. 사전에 홍보를 해야 SNS를 보고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됨.

즉, 시기가 있는 축제 등은 사전자료를 올려야 SNS를 보고 계획을 잡아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음

- 관광회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성 항목에 대한 조율 필요. 코로나 19 시대에 맞춰 국내 여행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예산 수립이 필요함

4) 건축분야

-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 주민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함. 주민·도민이 행복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중복이 발전할 것으로 봄
- 농촌 지역에 조성하는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은 예산집행 후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함. 조성 후 사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후관리까지 관리 감독 철저히 해줄 것 요망
- 도심 내 작은 공원, 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간판 없는 시범거리 조성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청남대 분야

-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청남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축제들이 도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청남대 발전을 위한 주변 문화유적과의 연계성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청남대 이용 수월성을 위한 쉼터 조성은 적절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경제환경분과>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 경제환경분야의 경우 우리도 경제와 도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내년도 예산편성은 급변하는 미래 대응 등 우리도 경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신산업 육성, 도내 투자유치와 도민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분야(코로나19 대응, 언택트 시대, 환경오염 등), 산불·야생동물 피해 방지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 지원 필요

2. 분야별 세부의견

1) 경제·신성장산업 분야

- 경제분야는 충북 경제 4%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분야로,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언택트 시대 해외 판로 개척, 소상공인 지원 및 방사광가속기 사업 기반 구축, ICT산업 지원 등 도민 복지 및 도내 GRDP 증가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
 -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언택트 시대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중소기업 온라인 유통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확대 필요
 - VR·AR 기반 해외마케팅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비대면 해외 마케팅을 통한 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절실한 기업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필요
 - ICT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선도할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됨.

2) 바이오·환경 분야

- 바이오·환경분야는 바이오 비전선포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과 야생동물 및 산불피해 방지, 수질 및 대기오염 등 주민들과 밀접한 예산으로 많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 지원으로 바이오산업 인적 자원 확보하고 우리도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꼭 지원 필요
- 대기측정망 운영
산업단지의 경우 대기오염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도민들 건강 보호를 위해 꼭 지원 필요

3) 기타의견

- 경제·신성장·바이오·환경분야의 경우 모두 도민의 복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업들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위원들의 의견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선해 나가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활용되는 것이 옳을 것임
-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검토 요청.
-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농정분과>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정책, 유기농사업, 동물방역 등 많은 재원이 골고루 배분되어 충북도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람
-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수입농산물에 대응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에 정부 농업 혁신에 맞추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활용하는 관광, 휴양, 체험 등의 기능을 살려나가면서 충북의 자랑인 유기농을 융·복합하는 형태의 새로운 소득 구조를 창출하는 사업의 발굴과 지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함

2. 분야별 세부의견

1) 농업정책분야

- 농업 정책분야는 농업인의 복지와 농촌체험 마을 육성지원, 귀농귀촌 사업 홍보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작은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다고 판단 됨
-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농업과 이른바 6차산업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도시농업 정책 아이템 발굴, 도시농업 관리자 집중 육성이 필요함
-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농촌휴양마을 민·관이 함께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받침을 요함.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라 농작업 중 안전사고나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에서 나타나는 상해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확대 지원 필요

- 여성농업인 행복마우처사업

충청북도 특수사업으로 정부 우수사업에 선정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으로 앞으로 지원 대상을 농촌의 여성층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농촌체험 휴양마을 한마당 행사 지원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행사를 통해 충북 농산물의 홍보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데 농촌 휴양마을이라는 일부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그치지 말고 농촌관광의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관련된 모든 조직이 함께하는 행사로 변경하여 충청북도의 농촌관광 농업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길 바람

2) 유기농산분야

○ 유기농 특화도인 충북 유기농 산업을 총괄 육성하는 분야로 유기농산물의 소비확산, 괴산 유기농산업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준비 등 중차대한 현안이 있는 분야로 충북농정의 핵심인 만큼 매우 중요한 분야임

-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관련 홍보 및 행사

2022년도 개최 예정인 괴산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유기농 특화도인 충북 유기농산업의 성공적 확산에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사전 준비는 물론 체계적인 홍보와 짜임새 있는 학술행사로 차질없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과수화상병 대체 작목 육성지원

과수화상병의 다량 발생에 따른 매몰 농가 지원은 복지 차원이나 재해지원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대체작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가의 즉흥적인 판단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육식물 수출 및 청년농 육성 지원

전국 다육식물의 재배 분포로 볼 때 충북의 재배 규모가 전국 최상위권이며 국토 중앙에 위치한 충북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전국단위 판촉 행사를 통해 수출과 판매를 지원하여 청년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우리 충북의 다육식물 산업의 위상을 적립하고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 강화 필요

3) 농식품유통분야

○ 농식품 유통분야는 식품산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된 이후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에 충청북도 농정에서도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발굴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권역별 안전분석센터 건립 지원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충북농산물의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본 사업은 정밀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코로나19 이후에 강조되는 식품의 기능성 분석 분야도 병행할 수 있는 분석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충북 브랜드 쌀 마케팅 지원

충북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1개 시군에 일괄 지원하는 것 보다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선정, 차등 지원으로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4) 축수산분야

○ 농업의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의무화되고 축산업 환경 부담금제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북 축산업의 이정표를 잘 세워야 하기에 축수산 분야가 중요한 위치에 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축산농가 곤충사료 첨가제 지원

급성장하고 있는 곤충산업의 소비 확산과 첨가제 급여를 통한 가축의 면역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시대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평가함.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구조를 위한 사업으로 곤충 사육농가가 곤충에서 기름을 빼고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어가는 공정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곤충 소재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맞추어 추진되는 본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며 시중에 출하되고 있는 많은 발효 촉진제 중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제재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추후 효과도 조사가 병행되어 금후 지원사업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현재의 양봉 산업에서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바이러스성 질병은 양봉산업의 존폐와 맞물려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토대로 세밀하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5) 동물방역/위생시험분야

○ AI, 구제역 등 동물 전염병의 발생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구상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함

-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등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과, 양돈, 양계 전염병 예방 사업 등의 선제적 예방사업은 충북 축산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며 지역별 접종시기를 적기에 시행하여 접종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함. 미접종 가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식용란 품질 검사비 지원

살충제 달걀 사태 이후 달걀 생산의 친환경화를 도모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책으로 달걀의 품질 검사 및 난각일자 표시 등의 안전장치 표시는 생산자의 책임이기에 본 사업을 정밀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농업기술원 분야

○ 개도국 지위 포기, 공익형 직불금 제도 시행 등 농정의 틀이 혁신적으로 바뀌면서 농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청년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에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창업 성공모델 지원 사업과 농촌노인들의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등 농촌 사회변화를 위한 사업들은 시기 적절한 사업이라고 평가됨

- 청년 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 사업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기에 농촌에 젊은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 진행시 청년농업인에게 실습포장을 임대해주어 직접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나 연구사를 지정, 1:1 멘토제를 시행하여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농촌노인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시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바 농기계 운전사고, 고독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이고 마을회관이나 공동주택을 이용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하여 본 사업이 농촌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요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안전건설분과>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 지방재정의 어려움에도 재난안전 및 하천분야, 균형발전, 도로시설 유지관리 분야와 소방분야에 신규사업, 유지관리, 시설홍보, 안전 등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도민의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 기대가 됨
- 특히 도로, 하천분야의 예산은 신규 편성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유지보수 분야에도 더 관심을 갖고 증액이 필요하며, 모든 사업을 사전에 분석하고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재정운영 기본방향이 일자리 창출 및 안전관리 강화 등 도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 분야별 세부의견

1) 재난안전분야

-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재난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책을 세워 도민이 안전한 충북이 될 수 있었으면 함
- 재난안전분야는 그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 지원해야 하고,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됨
- 또한 재해예방사업은 금년도 수해를 고려할 때 하천의 하도준설, 공작물 보수, 수목제거, 위험시설 정비 등 하천별 필요한 수요조사와 함께 증액 편성이 꼭 필요함

2) 균형건설분야

- 고속도로 지선 및 국도 등 신설할 때 편리성, 이용객 수 지역경제 연계 및 유발 효과 뿐만 아니라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노선 및 경유지를 결정할 것을 건의
- 지방도 관리를 국도관리체계와 비교할 때, 포장보수, 차선 및 시설보수 등 현저히 뒤쳐지는 것은 인원, 유지관리예산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임. 노후 포장, 시설물 보수예산을 노선별 실태조사와 수요를 파악, 증액해야 함에도 매년 같은 실링 예산을 책정 편성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함
-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유지관리예산 증액이 가장 중요함

3) 소방분야

-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도민들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시는 소방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
- 도민공감 안전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은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함
- 생명존중 119구급·생활안전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다양한 재난에 대한 예방에서부터 대응까지 투입되는 모든 예산은 정말로 중요함
특히, 현장활동 및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방분야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해 주길 당부함